

특별기고



문순태 소설가

‘광주다운’ 저널리즘 실천을 - 광주일보 창사 67주년을 축하하며

한 이념적 대결과 엄혹했던 군사 독재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인들은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지사적 기자 정신으로 정의의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왔다.

80년 5월 광주는 공포와 분노와 눈물의 외판 섬이었다. 5월20일자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치욕 속에서도 기자들은 날마다 전원 출근하여 취재에 임했다. 당시 전남매일 편집부 국장이었던 필자 또한 5-18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이 새롭다. 1980년 5월 18일과 19일의 폭력 진압을 지켜본 기자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도하지 않으면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편집국 간부들은 일단 이를 동안 취재 내용을 기사화하도록 했다. 비록 검열 때문에 신문을 발행할 수 없더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기록만은 역사로 남겨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이날 광고도 없었고 조판이 완료된 1면 헤드라인은 '광주全域 공포... 진압군 무

차별 亂打'였다. 18일과 19일에 일어났던 폭력 진압의 내용을 모두 실은 20일자 신문은 조판만 되었을 뿐 발행되지 못했다.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집단 사표를 쓰고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들이 개 끌려가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 기자 일동"

21일 정오를 알리는 애국가와 함께 계엄군의 총부리가 시민들을 향하고 총탄이 발사될 때까지 기자들은 금남로 도청 앞 광장에 있었다. 이때부터 공수대원들은 눈에 보이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다. 공수대는 21일 5시 30분 도청을 철수했다. 21일 5시30분부터 27일 공수대가 광주에 다시 진압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에 모였고, 기자들은 시신 발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취재에 임했다. 그리고 27일 새벽 나는 계엄사로부터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하라는 전화를 받

았다. 사장부터 차레대로 전화를 했는데 모두 부재중이어서 결국 내가 받았다고 했다. 나는 공무국장과 부장들에게 전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출근해서 신문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광주를 탈출했다.

계엄사에서 6월2일까지 신문을 제작하지 않으면 발행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기자들은 계엄사 발표 내용으로는 신문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6월2일 아침 회의에서 장간한다라는 마을가집으로 상징적인 신문을 제작하고자 했다. 1면에 무등산 사진과 광주 시민의 아픔을 내용으로 쓴 시를, 사회면에는 도청 앞 광장의 분수대와 시민들의 표정을 스케치 형식으로 실려고 했다.

나는 서둘러 당시 전남교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한테 전화로 시를 청탁했고 김준태 시인은 1시간만 후에 120행의 장시를 써 왔다. 검열관이 80행에 붉은 볼펜으로 '삭제'를 표시했고 나머지 40행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제고 요망' 표시를 했다. 하지만 결국 40행을 그대로 살려 발행했다. 계획대로 1면에 광주 시가지들

품은 무등산 사진과 함께 '아아 光州여 우리나라의 十字架'라는 김준태 시인의 시를 실고, 옆에 '光州事態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김정 컷을 실었다. 그리고 사회면에는 분수대 사진과 같이 '광주는 영원하다'라는 제목과 '눈물과 피로 번쩍했던 光州의 5월, 80萬 市民의 가슴마다에 쓰라림'이라는 부제를 단, 잠담하고 눈물겨운 광주 분위기를 실었다. 이날 시민들이 신문을 사기 위해 신문사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종일 운전기를 돌렸다. 며칠 후 김준태 시인은 정보부에 불참하겠다고 나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곧 퇴직당하고 말았다.

당시 광주일보의 또 다른 전신인 전남일보 또한 신문 제작 거부로 인해 군부 독재에 항거했다. 많은 신문들이 시민군을 폭도로 모는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을 때 광주일보는 결연히 붓을 놓음으로써 저항한 것이다.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1980년 12월 광주일보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며칠 후엔 어김없이 역사의 엄숙성과 함께 5월이 오고,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다. 다시 5월을 맞으며, 창사 67주년을 계기로 광주일보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피와 눈물로 일구어 낸 5-18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광주 정신'은 광주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꿈이다. 빛나는 광주 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념화하는 일에 광주일보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 평화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이때, 국민 통합을 위해 보다 선명한 정론을 펼치기 바란다. 또한 지방 자치 대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자체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역량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민주 성지 광주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신문답게 '광주다운' 저널리즘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 이 땅에 하나뿐인 광주의 희망, 광주일보여 힘내라.



한-터르크 정상 근로자들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18일 오전(현지시간) 키안리 가스화학플랜트를 방문해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후 박수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터르크메니스탄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규모로 중앙아시아 최대이자 터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이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활성화, 광주시-공공기관 함께 한다

후원사업 협약... 우선구매·축제공동추진·행정지원 등

광주시에 산하 공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우선 구매, 축제 공동 추진, 행정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광주지역 22개 전통시장은 이날 '공공기관-전통시장 후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공공 기관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16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이 시장이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 분야별, 업종별 경제인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 평동산업단지 기업대표 및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은 앞으로 결연 시장을 대상으로 물품 우선 구매와 시장 방문 활성화, 축제 공동 추진 등의 행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분기별 후원시장 가는 날 행사와 기관 회식, 환경 정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의 연계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집과 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함께 상인회 주도의 시장별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 행사 모델 보급·확산 등을 통해 전통 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 문화가 깃든 곳이다"며 "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속도' ... 나주시의회 지원 동의안 통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331억 제외 논란

전남도의회에 이어 나주시의회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의결해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나주시의 재정 지원금 1662억원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331억원을 제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회는 18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애초 동의안에는 한전공대 대학 발전기금을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과 매입비 662억원에 달하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80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전체 부담 액수를 대학발전기금 1000억원과 연구소 부지매입비 331억원 등 총 1331억원으로 수정했다. 상임위는 클러스터 부지 조성에 드는 331억원은 아직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수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동의안 가결 이후

본격적으로 사유지 보상·매입 절차 등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던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재정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시기를 조율 중으로 오는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재정 지원과 부지 제공,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등의 이행사항이 담겼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삼니다' (Samnida)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NAVER Debt Collection Ki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금당공인중개사' (Gim-dang Real Estate Brok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Advertisement for '신창동, 근린상가' (Shin-chang-dong, Residential Complex) listing feature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Advertisement for '다스코진' (Dasko-jin)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a comparison table between Dasko and Seraco.